

“숲 체험 통해 질서 의식·협동심 키워 주길”

전주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체험 행사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연자)는 지난 13일 송천동 건지산 일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영유아들은 집결장소에서부터 숲길을 따라 부모와 함께 걸으며 자연의 작은 변화를 느꼈다.

또, 설치된 5~6개의 관문들을 부모와 함께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 게임을 즐기는 등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날 숲 체험에서는 걸기 중간 이벤트 행사로 △마주보며 인사 나누며 웃기 △아랫배 두드리며 걸기 △마주보며 30초간 칭찬하기 △순백치며 걸기 △반쪽 등 영유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서와 협동심에 대해 배우는 등 즐겁고 유익한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부모님과 함께 숲 체험을 통해 신체 건강하게 단련시키며 질서 의식과 협동심을 키워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3일 송천동 건지산 일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행사를 가졌다.

전주비법밥축제 자원봉사자 '비비미' 발대식 가져

'2017 전주비법밥축제'를 이끌 자원봉사자 '비비미'가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전주비법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지난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축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 '비비미' 10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현장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비비미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전주비법밥축제' 현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안내 △비법전설, 쿠키콘서트 등 음식 관련 메인행사 준비 지원 △비법문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진행 지원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행사유니폼과 소정의 활동비, 축제기간 중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되고,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또, 전 기간 활동 완료시 참여 증서와 기념품이 지급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5-4113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65-9355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1-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양현고 수학·과학 체험전 개최... 창의적인 체험활동 제공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양현고등학교(교장 김갑식)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양현고 강당에서 제 1회 양현고 수학·과학 체험전을 개최했다.

올해 전북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된 양현고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서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분야의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이번 체험전을 기획했다.

양현고 학생들은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과학 체험전을 통해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이번 체험전에서는 수학부문의 '수학적 착시', '뿔거스편지'의 6개 프로그램과 과학부문의 'CSI 양현 과학 수사대', '드론과 아두이노 세상'의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의 4개의 수학 구조물이 전시되어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초·중학교 학생들이 맞이했다. /정해은 기자

완산도서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연극 개최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지난 13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유아 100여명을 대상으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극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단 다문화프로그램으로 공연은 익산시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장단한 연극단이자 다문화 이주민으로 구성된 '뽕꾸리 연극단'이 맡았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20일에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연극을 1회 더 개최하고 다문화에 대한 유아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는 완산도서관 아동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3-230-1804)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시켜주고, 이주민들에게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임실군 재향군인의 날 행사 개최

임실군 재향군인회(회장 김대영)는 지난 13일 임실축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제65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와 정보록 2대대장을 비롯해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군의 다짐 낭독을 시작으로 티의 모범이 된 5명에게 유공자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최근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결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대영 회장은 “향군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변함없는 안보의식으로 우리고장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시민경찰과 범죄예방 간담회 가져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시민경찰 5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민생치안확보를 위해 시민경찰5기와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경찰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시민경찰의 지역 치안의견 및 활동시 애로사항을 듣고 경찰업무에 대한 활동과 추진사항을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하태식 서부파출소장은 “바쁜 생업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숭선 수범하며 봉사하는 시민경찰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부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고창경찰서, 자랑스런 경찰 선정자 표창 수여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지난 13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소정, 해리파출소 경사 이정재를 3/4분기 '자랑스런 고창경찰'로 선정하고, 교통관리계 경위 이정우, 112종합상황실 김태훈 경위, 청문감사관실 박원성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3분기 자랑스런 고창경찰로 선정된 김소정 순경은 아동·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예방 활동과 아동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정재 경사는 지역행사에서 교통관리·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홍보 활동에 충실한 점 등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한편 이날 추석전후 특별방범기간 교통안전 관리 및 공감치안 활동 유공으로 이정우, 김태훈, 박원성 경위가 표창을 수여받았다.

수상하게 된 김소정 순경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동료들과의 협업과 경찰의 기본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서, '심근경색증 예방·관리' 교양아카데미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3일과 16일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훈 교수를 초청하여 '심근경색증 예방 및 관리'라는 주제로 10월중 경찰교양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각종 운동으로 체력에 자신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건강에 대해 돌아보고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강사로 나선 이영훈 교수는 “비정상적인 리듬의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찰관들에게 건강 관련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도내 경찰관들도 금연 캠프 특강 등 건강한 전북경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일섭 서장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시 지역 주민 곁에서 응급조치까지 가능한 순창경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당당한 의회, 완주군의의회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 2017.10.17 ~ 10.23(7일간)
전화 290-2532 팩스 290-2539